

해외자원개발 정책 방향은 현재 검토중으로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

< 보도내용 >

- ☐ 2026.9.10.(목) 서울경제 「“10년 멈췄던 해외자원개발, 연내 부활”」 및 「“핵심 광물 제련에도 적극 투자…‘제2 불레오’ 다시는 없을 것”」 기사에서,
 -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연내 법 개정을 거쳐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를 재개하고 자본금 납입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, 민간과 함께 해외 광산·제련 사업에 투자한다고 보도했습니다.
 - 의원입법으로 공단법을 개정해 연내 해외자원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, 이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.

< 정부입장 >

- ☐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 방향은 아직 결정된바 없으며, 해당 인터뷰 내용은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.
- ☐ 기사에서 언급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과 공단의 해외자원개발 기능 및 투자 재개 여부, 자본금 납입 한도, 투자 방식·지분 한도 등은 산업통상부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.
- ☐ 관련 사항에 대한 정부정책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정부 정책에 오해가 없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산업통상부 광물자원팀	책임자	팀 장	장민재	(044-203-5259)
		담당자	서기관	박광일	(044-203-5214)